

## Issue Comment

2018. 10. 29

# Kering (KER FP)

## 3Q18 Revenue 실적 발표



### 유통/화장품

Analyst 양지혜

02. 6098-6667

jihye.yang@meritz.co.kr

### Kering (KER FP) 3분기 매출 실적 발표 (10/23)

- 2018년 3분기 매출액 3,402백만유로 (+27.6% YoY)를 기록하여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매출액성장률 +26.8% YoY 대비 전혀 꺾이지 않음
- 채널별로는 특히 온라인 매출이 80% 이상 성장하였음, Gucci 브랜드의 온라인 매출이 68% 증가했고 면세점 또한 견조한 실적 모멘텀을 이어갔음
- 브랜드별로는 전사 매출의 63%를 차지하는 Gucci가 +34.9% YoY, Saint Laurent이 +16.5% YoY, Bottega Veneta -7.8% YoY, Balenciaga 등 기타 럭셔리 브랜드들이 +32.2% YoY 성장하였음
- 지역별로는 Western Europe +25%, Asia Pacific +33%, Japan +22%, North America 36% YoY 증가하여 전세계적으로 모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
- 컨퍼런스콜에서 해외 투자자들은 1)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전혀 꺾이지 않은 높은 성장률의 원인과 2) 중국 따이구 관련 매출 비중, 3) 2019년 높은 성장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집중
-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중국 우려감으로 3분기 주가 하락하였지만 Kering Gropu의 중국 성과는 견조하며 특히 중국 현지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한 온라인 채널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음
- 향후 자연스럽게 Gucci 성장률이 30%대에서 20%대로 둔화될 수 있겠지만 차별화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높은 성장을 이어갈 계획
- 따이구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우선이며 중국 현지에서의 고객들의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음. 최근 호실적은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중국 현지 채널에서의 기여도 (50% 이상)가 훨씬 높다고 밝힘

### Compliance Notice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0월 2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10월 2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0월 2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양지혜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